

웹드라마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는> 인터뷰 녹취록

*본 인터뷰는 10월 말에 진행된 것으로, 가독성을 위한 최소한의 검수 작업만을 거쳤음을 알려드립니다.

*영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내용들에 대한 아쉬움을 느껴 한글 인터뷰 전문을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인터뷰에 응해 주시고 이후 인터뷰 전문 공개에 동의해주신 전다현님과 최지원님께 감사드립니다.

Q. 웹드라마가 너무 잘 됐잖아요. 제작을하기로 결정한 이유와 기획 배경 간단히 얘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현: 일단 처음에 기획을 생각했던 것은, 선거운동본부때부터 그냥 아이디어 던지는 식으로 나오긴 했어요. 국서를 어떻게 운영할지 계획을 미리 해놓는데 국서를 얘기하면서, 요즘 유튜브를 많이 하기도 하고, 새로운 소통 창구로서 카드 뉴스 뿐만 아니라 영상으로 더 많은 소통을 해보자고 생각이 들었어요. 구체화를 좀 하면서 아 그러면 요즘 웹드라마가 엄청 작년부터 많이 유행을 했으니까 사람들에게 인기 있을만한 소재를 가지고 인권을 이야기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작년에 총학생회를 하면서 인권 주간이나 축제를 했을 때 생각보다 무거운 주제는 관심을 끌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관심을 가질 주제와 그 안에 의미를 넣게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아이디어 식으로 나왔어요. 그때는 정말 그냥 던지는 식이었고, 본격적으로 총학생회를 하게 되면서 미디어 영상국에서 '기획을 해보겠다'고 했고 (그 이후로) 국장단과 미디어 영상국이 매주 회의를 했어요. 어떻게 내용을 할지 대사 하나하나 다 신경 써서 제작을 한 거여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총학생회를 시작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제작을 해야겠다고 했던 것도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11월에 온라인 인권 축제를 기획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코로나도 처음이었고 행사도 다 취소되는 상황이었어요. 새터(새내기 배움터)도 취소되고 OT도 취소되고 나머지 축제 같은 것도 다 취소가 돼서 '아 우리 행사를 못하냐? 인권 축제 같은 건 어떡하지?' 생각을 하게 되면서 차라리 우리가 이거(웹드라마)를 장기로 한번 기획을 해보자 해서 기획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의 작년부터 품어왔던 아이디어를...

다현: 근데 작년에는 정말 그냥 '아 이거 어때?' '이것도 괜찮겠네' 정도였고 본격적으로 한 건 올해 4월달부터였던 것 같아요.

Q. 제목의 뜻은 무엇인가요?

다현: 제목이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는>이잖아요. 사실 성소수자나 그런 다양한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고, 우리 옆에도 있고 그게 당사자일수도 있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은 그런 소수자성을 가진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이 사람들은 약간 별난 사람들' 또는 정말 '없는 사람들' 정말 '수적으로 없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게 사실 일반적이죠.

웹드라마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이잖아요. 현실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일어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말을 하고 싶었어요. 진짜 우리는 여기 있는데 '이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다 이렇다' 라는 점? (제목의 뜻은) 이름 그대로인 것 같아요. '어디에나 있다', 어디에나 있지만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래서 그걸 좀 부수고 싶었죠.

Q. 캐릭터의 기획 과정에 대해 여쭙보며 원래는 나이, 학과, MBTI를 여쭙았는데요. 혹시나 해서 여쭙보는 건데 MBTI는 시청자 분들이 추측한거죠? (다현: 그렇죠. 이제 저희가 MBTI가 무엇이다 말씀을 드리진 않았으니까) 댓글 중 기억에 남았던 게 'ISTJ와 ENFP의 연애나'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혹시 나이, 학과 어떻게 정하시게 된 건지 그리고 혹시 생각하신게 있다면 MBTI도...

다현: 사실 학과는 저희가 마지막까지 정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너무 한 학과로 국한이 될까 봐... 그리고 딱 특정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요. (드라마) 내용을 보면은 '어느 학생회다'라는 말이 안 나와요. 학과 학생회인지, 단과대 학생회인지, 총학생회인지...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냥 학생회라고만 지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학과는 정했다고 보기가 어렵죠. 일부러 그건 모호하게 둔 게 있었고요

그리고 MBTI는 딱 이걸로 하자 정한 게 아닌데 사실 얘기를 하다 보면 '우정'이는 진짜 활발하고 적극적인 성격이고 '수아'는 진짜... 사실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유형이라서 (ㅋㅋㅋ) 저희가 제작하면서 감정이입해서 말하고 그랬거든요 (지원: 자기 연애 얘기 하고) 자기 연애 얘기를 많이 투입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막 화를 내면서, 막 보면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화 내면서 저는 전적으로 '우정'이한테 감정이입했던 거고... 그리고 캐릭터를 기획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이제 '유진'이 성격을 정하기가 조금 (어려웠다)... 왜냐면 '수아'랑 겹치는 면도 있어서... 그래서 (기획을) 하다가 특징을 잡을 때 '유진'이는 이제 남을 잘 도와주고 잘 챙겨주는 성격, 이렇게 결정했고, 수아는 꼼꼼하고... 제가 싫어하는... (ㅋㅋㅋ)

지원: 처음에 캐릭터 성격같은 부분에서 서로 얘기를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누가 어떤 기획을 했다'라고 말하기가 진짜 애매한 게 저희가 진짜 (다현: 한 열 몇명이 같이) 열 몇명이 같이 몇 주 동안 내내 모여서 계속 회의를 했던 말이에요. 어떤 스토리로 짤지 어떤 캐릭터로 할지. 근데 둘 성격이 이렇게 된 거는 '상반된 캐릭터를 보여주자'라는 거에서 시작을 했어요. 저희가 아무래도 '다양함'을 드라마에서 보여주고 싶으니까 완전 다른 성격을 여러 방면에서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MBTI는 저희가 정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우정이는 ENFP, 수아는 IS.. (다현: T) FJ. 저는 F로 생각을 했었는데 사람마다 해석이 다르고... (다현: 저는 무조건 T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연애를 하는 애들은 무조건 T다, T일수밖에 없다) 저는 그 의도는 F로 했으나 보다 보니까 T인가 싶기도 한... 그런...

지원: 근데 저희끼리 진짜 얘기 많이 하고, 이제 서로 데이트 했던 내용 등이 진짜 많이 들어갔고...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저희가 'CC는 무조건 성복천을 걸어야 한다' 생각 했는데 (다현: 그때 홍수가 나서 못 찍었어요) 홍수가 나서... 그래서 학교 벤치로 바꿨고 홍대쪽 공원 벤치로 바꾸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복천이 정말 CC의 성지라고 생각해서 너무너무 넣고 싶었는데 그걸 못 넣은 게 좀 아쉬워요.

Q. 관객이 알아차리지 못했던 디테일이 있을까요?

다현: 근데 저희가 의도한거보다 더 많이 예측을 하셔서...알아차리지 못한...

지원: 일단 전체적인 디테일로는 혐오 발언, 혹은 차별적인 걸 담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웹드라마를 통해) '성 소수자 가시화'를 담고 있긴 하지만 또 누군가를 배제하고 싶진 않아서 비연애주의자도 살짝 씩 담으려고 했고 비건 얘기도 담으려고 했고 등등의

부분을 조금 노력을 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디테일 같은 이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수아' '우정' 하면 '수정' 커플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게 이름이 한자 뜻이 다 있어요.

아 진짜요?

지원: 한자 뜻이 다 있는데 수아는 '물 수(水)' '자아 아(我)' 로 '흘러가듯 살지만 그 속에 자아가 확실한 아이'고, 우정은 '우물 우' '우물 정(井)'이예요. 처음에는 '정우'라고 지었는데 그때 손정우 사건이 터져서 '우정'이로 바꾸게 되었어요. 우물이라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게 되는 사람이지만 가끔씩 유진처럼 빠져 죽기도 하고... 그리고 수아는 물이니깐 그 우물에서 살게 되는 이런 (디테일이) 있고 유진은 '흐를 유(流)' '구름 진(靄)'이었어요. 그래서 '어디에나 있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진 못하고, 그러나 뭐 하늘이 흘러가듯이 그냥 우리 일상에서 흘러가고 모르게 지나가는' 그런 존재? 이름으로 살짝 스포를 한 건데 아무도 그건... (알아차리지 못하신 것 같다)

(중략)

지원: 디테일 이렇게 또 뭐가 있지

다현: 근데 다 알아채시던데, 저는 놀랐어요.

지원: 그런 것도 있어요 1회 때 시간이 지나면서 회의 장면이 계속 바뀔 때, 등장인물들의 옷은 다 바뀌는데 딱 하나 '변화 주지 말자' 했던 부분이 '우정이 어깨에는 항상 수아 담요가 걸쳐져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옷이 계속 바뀌는데 수아 담요를 계속 걸치고 있고 부분들... 그리고 수아 단추는 꼭 끝까지 잠근다.

다현: 옷으로 성격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수아는 거의 항상 셔츠를 입고 나와요.

지원: 근데 누가 댓글에 '보수비언'이라고 해서 너무 웃겼고... 아 그리고 성격마다 회의 때 쓰는 도구를 다르게 했어요. 수아는 노트에 적고 우정이는 아이패드, 유진이는 맥북이다 이렇게 성격을 보여줄 수 있는 걸로 (정했어요)

저는 (디테일로) 그런 걸 생각했어요. (1화때 수아가 들고 가는) PPT 제목이 '사랑이란 무엇인가' 여서

다현: '사랑이란 무엇인가' - 교수 민한솔

지원: 그것도 최대한 교수님 스타일로 만들려고 했어요. 처음 주워 주는 프린트 물이 '사랑이란 무엇인가'이고 그 교수에는 감독님 이름이 적혀있어요. 사실 그 내용도 다 만들어 냈는데 막 '웹드라마 열심히 만들었어요' '다원 단체사진이에요 구경하세요' 이런걸 소소한 재미로 넣고 싶었는데 카메라에 잘 안 잡혀서 생략 됐어요. 아 그리고 우정이랑 수아가 처음 만나는 장면에서 우정이가 물 티슈를 건네주잖아요? 근데 고백을 하는 장면에서도 휴지를 건네주는... 그래서 첫만남과 고백씬이 약간 겹쳐지는 디테일도 생각 했고, 첫만남과 고백을 할 때 우정이의 옷이 똑같아요. 그런 부분도 살짝 생각을 해봤어요.

다현: 아 그리고 저희가 소품 쓸 때 일부러 굿즈샵 협찬을 받아가지고, 사실 담요와 같은 소품은 아무거나 써도 상관은 없는데 가능하면 좀 학교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요소를 넣자 해가지고 성신 굿즈로 다 하했어요. 우정이 뱃지도 다 수룡이로 넣고...

Q. 기획하며 가장 신경썼던 점은 무엇인가요?

다현: 저는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혐오발언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대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걱정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지원: 저는 뭔가 다들 고민하는 과정이 너무 많았어서 진짜 많은 걸 고민했겠지만...어... 뭘

고민했을까...?

다현: 아 또 생각났다. 이걸 저희 다 같이 고민한 건데요. 저희가 이걸 제작을 하면서 진짜 첨예하게 논쟁이 붙었던 게 주제가 '귀어잡아요. 성소수자인데 성 소수자를 미디어에 다룸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보여줘야 하나'에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안은 '성소수자가 겪을 수 있는 문제와 차별을 보여주는게 맞다' 였고 2안은 그런 것 없이 자연스럽게 가는게 오히려, 오히려 (차별적인) 그런 걸 보여주는 거다, 라고 해서 사실 2안으로 가게 됐죠. 2안으로 가게 된 이유에 제가 생각하기에 좀 컸던 거는 항상 모든 미디어는 소수자를 다룰 때 당사자성이 없잖아요. 다 타자화해서 다루잖아요. 근데 저희 웹드라마를 많이 공감해주시고 많이 좋아해주는 것에 대해 저는 당사자성이 있다는 점이 가장 크지 않을까? 라고 공개가 되고 나서 생각이 들었어요.

지원: 저는 기획하면서 신경 썼던 건 이게 진짜 '자연스럽게 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많이 컸어요. 이게 제목처럼 어디에나 있지만 아무도 모르고 뭔가 세상은 없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존재하고,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자연스럽게 담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지금 초반 생각이 잘 안 나서 그때 저희가 초반에 막 회의했던 자료를 보고 있는데 그때는 일단 기획의도를 잊지 않으려고 계속 노력했어요. '우리가 이걸 왜 하나 우리는 그냥 웹드라마를 만드는 게 아니다. 우리는 차별을 뒤집고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고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영향력을 주고 싶고' 이런 의도를 잊지 않으려고 계속 그걸 노력했던 것 같고, 다현님 말대로 성 소수자를 좀 일상화 해서 담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밝은 분위기와 잔잔한 분위기에서도 논의를 했었어요. 결국 '밝게 담자. 왜 성소수자는 어둡게만 미디어에 담겨야 하나' 이렇게 해서 밝게 갔고...

지원: 그리고 이게 단순하게 일상을 담는 게 아니라 어떤 스토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스토리를 처음에 짤 때 진짜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다현: 재미있어야 돼요 일단.

지원: 재미있어야 되고, 중심 스토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넣고 싶은 얘기를 다 쓴 다음에 '너 연애 얘기해봐' '너 얘기해봐' '너 CC하면 뭐 하고 싶어' 이런 얘기를 다 쓴 다음에 그거를 좀 넣고 이런 식으로 했었고

그럼 혹시 나왔던 얘기들 중에 되게 재밌었는데 빠지게 된 것들...(이 있을까요)

지원: 빠지게 된 거 뭐가 있지?

다현: 아쉬운 거 엄청 많았는데 이제 기억이...진짜 기억이 안나요

지원: (1회때) 수아가 규칙을 깨 가고 마지막에 'CC를 하지 않는다' 굿는 (아이디어) 제가 냈어요. 그 장면이 제일 좋았거든요. 그 장면이... 연기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그리고 담배신도 연기를 너무 잘해주셨어요. 그리고 못 나온게 뭐가 있었지?

다현: 진짜 많았는데

지원: 일단 나는 담배는 절대 빼고 싶지 않았어.

다현: 사실 담배도 걱정을 많이 했어요.

지원: 네 그 흡연자끼리 연습을 해봤어요. 연습을 해봤는데 불이 잘 안 붙는거예요. 그래서 그걸 빼야되나 했었는데 잘 됐고... 또 뭐가 빠졌지? 구름다리? 구름다리에 앉아서 떠드는 (장면)

다현: 데이트장소가 많이 빠진 것 같긴 해요. 장소를 많이 생각하긴 했는데...

지원: 학교를 진짜 많이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근데 비도 너무 많이 오고 상황이 개의치

않더라고요. 저희가 돈을 아껴야하니까...

다현: 그리고 괜히 장면을 더 구겨 넣을 수 없으니까...

지원: 그래서 회상 장면엔 일부러 학교를 곳곳에 보여주려고 했어요. 화장실 좋다는 거 자랑하고 싶어서 (ㅋㅋㅋ)

다현: 화장실에서 정혈대 (건네주는거) 추가하고

지원: 정혈대 워딩을 쓴다던가 여대에서는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도 도와준다는 것도 보여주고 싶었어요. 또 못 나온게 뭐가 있지?

다현: 진짜 많은데 진짜 아쉽다고 생각한 거 많아. 특히 1화에서. 1화에 정이 많은데

지원: 1화에...1화가...

재학생분들은 (웹드라마) 보시면서 '학관이었는데, 커피산다면서 어디 가냐' 이런 느낌으로 공간 관련해서 많이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면 기획 과정에서 공간을 일부러 좀 촬영에 적합하게 연결하신 건지 아니면 원래는 좀 현실적으로 하려고 했으나 상황에 의해서 그렇게 되신건지 (궁금해요)

다현: 전자가 더 큰 것 같아요. 저희가 일부러 (지원: 다양한 걸 보여주고 싶고) 운캠이 시설이 좋고 이러니까

지원: 그리고 뭔가 이게 저희가 하고자 하는게 누군가를 프레임화 하지 않으려고 만드는 건데, 캐릭터 자체를 어디에 고정 시켜놓고 싶지가 않았어요. 어느 과 어느 캠퍼스다 이렇게 고정시키고 싶지가 않았고 촬영장소를 생각하면 또 그게 어렵기도 했고요. 현실적으로...해서 그냥 자연스럽게...(ㅋㅋㅋ)

다현: 그리고 그 수정관 복사실은 수정관에서 부딪히는게 구조가 자체가 좀 애매하고 그런 게 있어서...

지원: 그래서 처음에 언덕에서 넘어지나 했는데

다현: 거기서 넘어지면 죽을 수도 있어서... (ㅋㅋㅋ)

지원: 거기서 떨어지면 죽는데, 막 텀블러 떨어뜨리면 정문까지 가야하는데 어떡하지 막 이려고 그런 생각 하다가...

Q. 드라마 이후 세 인물의 이야기가 궁금해요. 유진이는 어떻게 됐을지... 그래서 학과를 정해놓지 않으셨으니까 취업과 관련된 건 빼고 드라마 안의 맥락에서 드라마 이후에 세 인물이 어떻게 됐을 지, 유진이는 마음 정리를 어떻게 했을지...

다현: 사실 이걸 정하진 않았는데... 제 생각을 말해도 되나요? 저는...너무 다들 몰입을 깰 것 같은데 저는 우정이랑 수아는 헤어질 것 같아요

갑자기요? (ㅋㅋㅋ)

다현: 현실적으로.... 그리고 수아는 1학년이고 우정이는 3학년이잖아요. 학년이 또 차이가 나면은 이게... 저는 진짜 그 둘은 '오래 가봤자 1년이다'라고 항상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거 (기사에) 넣을까요 뺄까요?

다현: 넣어도 돼요

지원: 근데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다현: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강조를 해주세요

다현: 이제 유진이는 다른 사람을 짝사랑하지 않을까... 짝사랑하는 사람들 특징은 또 금방 새로운 (상대를 찾으니까)... 그리고 유진이가 우정이한테 의도치않게 많이 당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유진이가 이제 마음이 식으면은 우정이를 좀 싫어하게 되지 않을까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건 전적으로 저의 생각이구요. 이 이후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본 적은 없어요.

지원: 저는, 저희끼리 얘기는 안했고, 아 이거하니까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 드리는데, 처음에 저희가 유진이 너무 불쌍해서 유진이를 다른 사람이랑 이어줄까 말까를 엄청 고민했어요. 근데 세상에는 이뤄지는 사랑만 있는 게 아니니까 이뤄지지 않는 사랑도 담자. 그럼 유진은 짝사랑하는 것을, 짝사랑하는 본인의 역할을 다 한 캐릭터로 남기자. 그래서 이어지지 않게 한 게 있고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수아랑 우정이는...뭐 결혼하진 않겠쥬. 스무살때 만났는데 어떻게 결혼까지 가겠어요.

다현: 애초에 그런 (상반되는) 성격의 유형들은...둘 중에 한명은 지치게 되어있다. (ㅋㅋㅋ)

지원: 근데 저는 그래도 1년 이상은 가겠지...?

아 (한 분은) 1년은 안되고 (한 분은) 1년 이상은 가겠다(고 생각하신걸로...)

다현: 진짜 많이 가봤자 1년이다.

지원: 졸업하면서 헤어졌을 수도 있고

다현: 똑같이 또 우정이가 '서운하다'고 하면 수아가 '뭐가? 나도 노력했다' 이렇게

지원: 유진은 너무 불쌍해서 제 마음속에서 다른 사람이랑 엮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유진은 뭔가 짝사랑만 하다 보니까 남이 자신을 좋아한다는 거에 무뎠어져 있는데 갑자기 자신의 일상에 들어온 누군가에게 당황해 하면서 그렇게 스며들면서 사귀게 되지 않을까 라고 혼자 상상을 했습니다.

Q. 질문이 원래 준비 과정을 간단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캐릭터를 먼저 확실하게 잡고 그리고 나타날 이벤트들을 브레인스토밍하며 정하신건가요?

지원: 일단은 저희가 웹드라마 자체가 처음이고 이렇게까지 스케일이 크고 힘들지 몰랐어요 사실
다현: 또 구구절절 얘기해봅시다.

혹시 웹드라마를 제작해보신 분이 있으셔서 (제작을 하기로) 결정을 하신건지...

다현: 아니에요. 진짜 그게 아니에요

지원: 아무도 없고 그냥 저희가 '총학생회로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총학생회로서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제가 정말 가볍게 '아 나는 CC를 웹드라마로 찍어서 우리가 그거를 좀 알렸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다현: 이게 딱 선본 때 한 얘기에요

지원: 네 딱 선본 때 '나는 CC 웹드를 너무 찍고 싶어'라고, 우리가 뭔가 총학생회로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다 이런 얘기를, 왜냐면 여대에는 CC가 없다는 편견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하고 싶어했는데 다현이가 "너무 좋다" 했고 이제 영상국에 '우리 2학기때 뭐 웹드 하나 CC를 찍으면 의도가 좋을 것 같아' 하고 던졌는데

다현: 영상국에서 기획을 해온 거예요.

지원: 영상국에서 좌자자자작. (진행) 하려면 이걸 해야 되고 이걸 해야 되고 금액은 이만큼 이더라 이렇게 와다다다다 해온거예요.

다현: 그래서 갑자기 돌입하게 됐어. 갑자기.

지원: 그래서 저는 사실 미디어 영상국한테 너무 미안해서 많이 울었어요. 너무 미안해서... 이게

뭔가 이렇게까지 힘들고 질타를 받고 할 줄 몰랐으니까

다현: 업무량이 어느정도였냐면 미디어영상국이 거의 국장님이 일주일 내내 밤을 샀어요. 자도 한 두 시간밖에 못 자고.

지원: 이틀에 한 번 자고 사흘에 한 번 자고

다현: 국원들 전원이 다 거의 다 직장 느낌으로, 직장도 일반 직장이 아니라 영화 찍을 때 새벽으로 새벽에 밤새고 돌입하고 그러잖아요

지원: 근데 돈을 안 주고...

다현: 그런 느낌으로 했고

지원: 사비도 진짜 많이 들어갔어요. 왜냐면 이게 총학생회비는

다현: 딱 쓸 수 있는 항목이 있으니까...

지원: 장비, 배우 이렇게 쓰고. 이동할 때 한 사람당 장비를 이만큼 씩 막 들어요. 그래서 캐리어 들고 다니고.... 이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택시를 타야 되는데 택시비를 총학생회비로 할 수가 없으니까 **(사비로...)** 국장님도 사비 진짜 많이 쓰시고 그런 식이었죠

그만큼 결과가 잘 나와서...

지원: 너무 다행이에요

다현: 순서로만, 처음에 아이디어 이렇게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스토리 잡고 그 다음에 작가가 정해져서 작가가 그동안 스토리 잡은 거 바탕으로 시놉시스를 써오면 그 시놉을 검토하고 그 시놉을 다 쓰면 대본을 써오고, 그 대본을 바탕으로, 저희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미디어영상국장님이 그림 그리시는 친구한테 그림을 배워서 콘티를 다 그렸어요.

지원: 콘티 보여드릴까요?

다현: 그걸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콘티를 그린 다음에 장면 구분표라고 해서 이날은 이렇게 장면을 찍어야 되고 이 때 무슨 옷 입어야 되고 어느 장면 가고 이거를 계속 장면 마다... 예를 들어서 장소가 다르잖아요. 일반적인 드라마랑 장소가 다를 때, 찍는 날도 달라질 텐데, 이 날 똑같이 옷을 신경 써야 되고 생각보다 그런 식으로 신경 써야 되는게 엄청 많더라고요. 소품 하나하나도 신경 쓸 게 너무 많았고...

지원: 근데 맨처음에는 그것도 어려웠어요. 역할을 어떻게 나누어야 되지? 왜냐면 아무도 전문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게 다른 팀이었다면 각자 역할을 해오면 될 텐데 저희는 다 다같이 한번씩 검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역할을 어떻게 나눌까 그 회의를 했었고... 그래서 저는 무작정 책을 읽었어요. <웹드라마는 무엇인가> 이게 성신여대 도서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웹드라마 팀이 어떻게 구성되고 무슨 역할이 필요하고 이런 걸 읽고, 국장님은 책 저보다 훨씬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해서 일단 역할을 구성을 하고 미디어 영상국이랑 국장단 다 합쳐서 팀을 TF팀처럼 꾸려서 회의를 하고. 발상, 소재, 주제를 또 도출하고 거기서 1,2,3편 어떻게 할 지 캐릭터 설정하고 스토리 짜고 그걸 계속 돌리는... 계속 검토하고...

[콘티 보여줌]

다현: 카메라 구도를 다 고려해서 그린거라서..

지원: 이걸 다 그린 거라서, 이게 진짜 몇 백장이 나와요. 그러면 이걸 보고 촬영 구도를 생각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다 짜고, 의상 다 하시고. 이걸 매일매일 스태프 자료를 뽑고. 근데

좀 힘들었던 게, 저보다는 국장님이랑 하시는 분들이 힘들었던 게 돈을 아껴야 되잖아요. 그래서 '촬영 장비를 2주동안 빌린다' 하고 그 2주안에 모든 스케줄을 다 넣어야 되는거예요. 비가 오면 새벽에 찍어야 되고, 다음날로 바꾸고 그래서 2주안에 무조건 끝내야 된다 이게... 그걸로 스케줄을 조정하는 게 좀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사실 글 쓰는 건 작가님이 너무 잘해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스토리 하자 했는데

다현: 바로 다음주에 다 써오고

지원: 무에서 유를 창조해오시는 거예요. 진짜 스토리 기획에는 저희가 참여를 많이 했지만 대사 같은 건 전적으로 작가님 영향이 진짜 컸어요. 그리고 3화 유진 담배 불 켜 디테일은 작가님 혼자 생각해 오신 거 거든요. 그냥 진짜 각자 최선을 다해서 잘 나오지 않았나...

Q. 촬영 현장은 어땠나요?

다현: 현장이, 이것도 진짜 어려웠는데 코로나 상황이 계속 변할 때 였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장비를) 2주동안 빌렸기 때문에 무조건 그 안에 촬영을 해야 되고 여기서 연장되면, 진짜 대여료 생각보다 정말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들어간 돈의 90%는 촬영 장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 여기서 더 빌리면 안된다, 여기로 끝내야 된다' 라고 생각 했는데 그 때 막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가 촬영 중간에 막 상승이 돼서 중단을 한 적도 있었어요. 학교 교내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그러면 저희가 교내 촬영도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쩔 수 없이 며칠을 쉬어야 한다, 해서 며칠을 쉬는 적도 있었고... 그때는 뭐 촬영 장비 업체랑 잘 얘기를 해서 미루는 방식으로...

지원: 업체한테 막 저희 쉬는 걸로 해달라고

다현: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습니다.

지원: 촬영 현장 분위기는, 진짜 편한 편이었다고 생각해요. 일단 스태프들이 많이 갈렸기 때문에 배우분들을 많이 편하게 할 수 있게 좀 했던 것 같고 촬영 분위기도 되게 좋았던 게, 미디어 영상국 자체가 사람들이 되게 밝아요. 일할 때는 진지한데, 쉬는 시간에는 막 잘한다, 서로 칭찬해주고 독려해주고... 그래서 다들 피곤했지만, 좋았다. 비 맞으면서 촬영하고.

다현: 배우분중에서 한 분이 저한테 그 아무리 학생들이 한다고 해도 현장 가면 분위기 험악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좋은 데는 처음 봤다고...

지원: 너무 좋다고 해주셔서 그게 뿌듯했고... 근데 비가 오는데 저희보다 장비가 더 비싸니까...

다현: 장비 안 젖게 이렇게 막 하고.

지원: 저희는 무급이지만 장비는 유급이니까... 저희 다 우산을 배우랑 카메라에만 씌우고 비 맞으면서 촬영하고 그러기도 했죠.

다현: 촬영 현장 (에피소드) 또 있나요?

지원: 키스신을 원래 찍으려다가 해가 떠버린 거예요. (아 새벽에 촬영하신 거예요?) 네 새벽 촬영이었어요. 완전 밤에 촬영하면 너무 어두워서 조명인게 티가 많이 나고.... 사람도 없어야 되고 이래서 새벽에 찍는데, 생각보다 너무 촬영이 오래 걸리는데 해가 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 키스 직전까지 다 찍어놓고 취소하고 다음 날 새벽으로 미루고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찍고 그랬었어요. 그 때 좀 많이 절망적이었죠.

다현: 절망적인거 많았는데.

지원: 절망적인 거 너무 많았어.

Q. 그럼 절망적인 얘기 말고, 혹시 두분 각자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다현: 조금만 생각해볼게요.

지원: 너무 많은데. 나 웹드 진짜 팬 됐어.

다현: 저는 "왜 안해?" (2회 중) 왜 좋아하나면 사실 그게 진짜 제가 하고 싶은 말이라서 수아한테...

지원: 그래서 패러디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셨군요?

다현: 그게 이제 감정이 폭발할 때니까 그 장면이 제일 좋아요.

지원: 그 (패러디 속) 캐릭터도 '너 이거해, 너 이거해' 분배를 제가 했는데, 다현이의 평소 연애 스타일과 너무 유사해서 제가 일부러 '야 이건 너다 이건 너다'.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저는 제일 좋아하는 장면은 너무 많은데, 일단 배우가 나오는 장면 중에서는 수아가 'CC를 꿈꾸지 않는다'하면서 쳐다보는 장면이랑 그 다음에 유진이랑 우정이가 담배 붙이는 장면. 저는 그게 너무 설레더라고요

다현: 현장에서 설렜어요.

지원: 현장에서 설렜는데, 그게 촬영할 때 힘들었던 건 담배 공초가 계속 나와야 되는데, 촬영할 때마다 담배를 피야 되잖아요. 근데 현장에 담배를 피는 사람이 저랑 배우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계속 피고 넣고 피고 넣고

다현: 근데 돌이 볼씨가 남아있는 걸 찍어야 되는데 금방 꺼지니까 그걸 찍는게 진짜

지원: 그래서 그때 좀 어지러웠고... 근데 나온 장면이 너무 잘나와서 그 장면이 너무 좋고요. 그 다음으로는 저희 국원들이 나오는 장면을 좋아하거든요. "으이그" 하는 장면이랑 세린이가

다현: 그 꼬깔콘(씬)

지원: "네가 연애를 안해봐서 그래"

다현: 저 그거 너무 좋아해요

지원: 또 디테일 중에 하나가 그게 있었거든요. "6월에 31일이 어딴냐" 그거 할 때 이거 (손등으로) 세보잖아요. 제가 이걸 꼭 넣고 싶다고 했던 말이에요. 그 친구가 연기를 너무 잘해줘서

다현: 너무 잘해

그게 LT 장면이죠?

다현/지원: 네네

저는 (지원님) 창틀 어떻게 하다가 앉게 되신 건지, 어떻게 하다가 <탈코르셋: 도래한 상상>을 들고 앉게 되신 건지... 그리고 너무 묻고 싶었던 게 Hands Up, Start, Finish 대사랑... 패러디 때 또 하셨잖아요. 혹시 자의이신지 타의이신지...

다현: 자의죠.

지원: 그게 일단 다 애드립이에요. 애드립이고, 그게 사실 배우들 대본은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데, 동글이들이, 아 저희가 다원 국원들을 동글이들이라고 부르거든요, 애칭으로. 동글이들이 각자 어떤 대사를 칠 지는 안 정했었어요. 촬영 전날까지 (못 정하고), 전날에 정하고 그랬던 말이에요. 누가 어떤 캐릭터를 잘 할 것 같은지 생각해보고...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제가 안 할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원래 다현이었어요. 그리고 정상적인 장면이었어요.

다현: 막 일반적으로 '건의사항 있나요?'

지원: '건의사항 있나요?' 이런 장면이었는데, 그날 회의가 갑자기 잡혀서, 면담인가? 그래서

저희가 웹드라마를 찍는 동안은, 웹드라마가 이제 매일 하루종일 촬영이 있으니까... 웹드라마는 제가 담당하고 웹드라마를 제외한 면담같은 건 다현이가 가자, 이렇게 역할을 분담을 했어요. 그래서 다현이 역할이 자연스럽게 제게 된 거예요. (회의 장면을) 찍기 전에 창틀을 먼저 찍었는데, 창틀도 대본을 제가 썼어요. 왜냐면 제가 하게 될 줄 모르고, 애들이랑 하면서 "야 이런 건 어때, 막 커튼 올리면서 나올까" 이려고 "앉아서 하자, 이거 진짜 재밌겠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창틀에 앉았고... 뭔가 그런 짜증나는 복학생 캐릭터는 책을 막 덮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책을 할까 하다가 '아 책에도 메시지를 담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탈코르셋: 도래한 상상>을 들었고... 촬영을 하면서 웃음 참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배우분이 제일 찍기 힘든 촬영 장면이라고 했어요. 웃음 참느라 제일 찍기 힘들었다고 했고... 저도 웃음 참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끝났던 게 제가 애들한테 폐 끼치기가 너무 싫어서... 나 따위 장면을 찍는데 시간을 소비하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한솔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이 장면을...' 이러면서 엄청... 그 장면을 찍고 회의 장면을 찍었는데, 이제 회의를 일반적으로 "건의 사항 있으신가요?" 했는데 갑자기 카메라 감독이, 예빈이가, "아 근데 언니 이거 아까 장면이랑 캐릭터가 너무 안 맞는데?" 이러는 거예요

아 '창문씬'이 먼저 나와서...

지원: 네 창문을 먼저 촬영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 어차피 웃도 갈아입어서 아무도 난지도 모르는데 꼭 그렇게 해야하나...? 했는데 "아, 아니야 좀 통일을 해야 될 것 같아. 좀 느끼하게 해봐" 해서 핸드업, 스타트, 피니시 뭐 이런 거 다 애드립으로 했던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파장이 클 줄 몰랐어요. 정말

Q. 최초 공개의 실시간 댓글을 통해 만든 질문인데, 맥주가 웰치스가 된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지원: 아 근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원래 성북천에서 찍으려고 맥주를 해놨는데, 촬영날에 성북천을 못하게 돼서 "아 이거 어떡하냐 앞장면을 다 찍어놨는데 어떡하냐". 근데 잔디밭에서 술을 먹는 장면을 저희 찍어서 배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웰치스로 바꿨고 대신에 그 앞에 자세히 들어보면 (대사가) "아 배부르다" 이래요. 그래서 술은 밥 먹으면서 마시고 온 걸로 하자. 그래서 웰치스로 됐죠.

혹시 웰치스 맛은 어떻게 정하게 된 건가요?

지원: 맛은 제가 음료를 뽑으면서 그 캐릭터를 생각했을 때, 우정이는 '웰치스 포도' 같고 수아는 '탄산수' 같은데 촬영할 때는 두 음료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좋아하면서 서로를 닮아가는 그런 느낌으로...

아 음료 안에 서로를...

지원: 음료를 뽑을 때도, 음료를 되게 여러 개를 샀어요. 뜯는 장면을 여러 번 찍어야 되니까... 근데 1층에 그 음료가 다 떨어진 거예요 이미 촬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뛰어다니면서 "여긴 있겠지 여긴 있겠지" 하면서....

Q. 비연애주의자 대사에 대해서

다현: 그것도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저희가 아무래도 주제가 연애다 보니까, '우리가 성소수자를 말할 하면서 연애에 너무 치우쳐져 있게 보이지 않을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은 좀 단편적이긴 하지만, 일부 요소이긴 하지만 여기서도 '꼭 연애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주자 라고 해서 그거를 우리 인권연대국장님께서 해주셨죠.

지원: 이거는 저희가 웹드라마 기획 초기 때부터 계속 얘기를 했어요. 주변에 비연애주의자 한 명을 꼭 넣자 했는데, 어디에 넣을까 하다가, 이 장면에서 질문이 너무 연애 위주니까 이때 넣고, 비연애주의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뭐, 만나면 바뀐다" 이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말 하나 넣고 그랬죠.

Q. 수아, 우정의 연애를 모두가 알았을까요?

다현: 원래부터 눈치를 채고 있는 걸로... 사내 연애는 티가 날수밖에 없어서...자기네는 잘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 알고 있는...

지원: 저는 그 중에서 일부만 알고 있다고 설정을 했던 게, 왜냐면 (LT 장면에서) 제가 유진이랑 우정한테 서로 설렌 적 있냐고 물어보잖아요. 근데 알면서 그걸 물어보면 제가 진짜 쓰레기잖아요(ㅋㅋㅋ) 그래서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어차피 걸릴 운명이다... 이렇게...

Q. 일부러 담배를 넣은 이유가 있을지, 담배의 의미에 대해 여쭙보고 싶어요

다현: (일부러 넣은 이유가) 있었죠. 일부러 넣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웹 드라마가 기존의 편견을 깨는 요소가 됐으면 좋겠다고... 사실 이걸 제작 의도였기 때문에, 담배도 일반적으로 '여자는 담배를 안 피지, 피면 안되지' 라는 고정관념이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여대를 오면서 아 이렇게 담배를 피는 사람이 많은데 왜 여자 담배 피는 사람들은 애초에 미디어에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그냥 있다고 여겨지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담배가 물론 해로운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을 그런 사회적인 요소로 봤을 때에는 이걸 넣는게 훨씬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원: 그래서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담배를 어떻게 해야 될까 마지막까지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중요시 했던 게, 담배를 담되, 여성에 대한 차별을 깨기 위해서 평범한, 정말 흔한 여성의 담배 피는 모습을 담되, 대신 민폐 끼치는 흡연자는 아닌 걸로 하자. 그래서 그 장소에 재떨이가 있을 리가 없는데 재떨이에 버리는 걸로 하고 싶어서 다 재떨이 놓고...

다현: 진짜 바닥에 던져야 하는 장면인데, 그러면 안되니까 재떨이를 다 가지고 다녔습니다.

Q. 교수님 섭외 과정에 대해서

다현: 아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수업을 들어서 아는 교수님이셨는데, 그분이 또 PD셨고 연출도 전공하시고 그래서 원래 처음에는 '아 우리가, 너무 비전문가들만 하니까 너무 검증도 안되어 있고, 사실 반응이 어떨지도 모르니까 한번쯤 검토를 받아야될까?'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검토를 받진 않았고 어떻게 얘기하다가 안 받는걸로 했고... 그 장면에서 치고 가는 사람이 일단 학생은 안됐어요. 왜냐면 나쁜 학생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학생은 안되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교수님 밖에 없는데, 그러면 또 교수님을 나쁘게 만들어 버리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제가 교수님한테 '혹시 출연해주실 수 있냐, 총학생회에서 웹드를 만드는데' 그래서 해주신다고 하시면서 쓴 답변 메일에

지원: "내가 나를 관록 있는 연기자인데 비중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싶지만 열심히 해볼게" 라고 하셔서 대사로 넣었어요. 그래서 일단 웹 드라마에서 '나쁜 사람'을 만들고 싶지 않았고요, '악역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쁜 역할이 있다면 무조건 '학생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사실 죄송하지만 교수님한테 떠넘겼고요

다현: 교수님이 이제 잘 풀어주셔가지고

지원: 근데 이제 사실 교수님을 그렇게 나쁘게 담으면, 성신여대 교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져서 좋을 게 뭐가 있나, 생각을 하다가 제가 '아 그러면 이게 웹 드라마라는 걸 아예 대사에서 쳐버리자' 해서 대사를 짜서 보내드렸는데 답변이 너무 웃겨서 추가하고 수정해서 그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의 양말이 혹시 연출이 된 건가요?

지원: 그 양말이 스토리가 있어요. 그 양말이 클로즈업 씬을 찍는게 진짜 진짜 힘들었던 말이에요. 카메라가 진짜 커 가지고 감독님이 진짜 힘들어 하셨는데... 교수님이 되게 신경 써서 입고 오신 거래요. 양말이 졸업한 학생한테 선물 받은 양말인데 신는 걸 이렇게 보여주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신고 오셨다 하더라고요.

Q. 기억에 남는 댓글이나 최초공개 실시간 채팅이 있나요?

다현: 저는 사실 그 실시간 스트리밍은 그때 축제여서 너무 바빠가지고 실시간 댓글은 못봤었고 유튜브 댓글은 다 봤는데, 일단은 전체적인 반응이 너무 좋아서 저는 좀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좋다고? 싶었는데 저희가 대동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제일 높게 나온 프로그램이 웹드라마였어요. 연예인보다 더 높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너무 뿌듯했고...

지원: 저는 일단 모든 댓글이 너무 좋았고요 진짜로, 너무 좋았고. 반응을 다 찾아보는데 저희가 이게 사실 제가 찍다 보니까 자신감이 없어지더라고요. "우리 진짜 잘했다" 싶지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지 객관화가 안되는 거예요. 스토리를 기획할 때부터 계속 봤으니까 이게 재밌을까? 괜찮을까? 라는 걱정이 많았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전체적인 댓글이 다 좋았고... 댓글 중에 "키스 갈겨"랑 "레즈잘알"이다. 왜냐면 여태까지 성 소수자 미디어는 다 사람들의 환상 속에 있는 레즈비언, 사람들이 보고싶은, 자신 눈 욕구를 해소하고 싶은 레즈비언 모습을 담았다면 이거는 진짜 뭔가 경험담을 담고 그래가지고 한 거라서 "레즈잘알이다"라고 했던 게 저희가 노력했던 게 알아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다현: 저는 (웹 드라마) 보시고 막 "성신 오고 싶다." 이렇게 하는 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지원: "성신이 이렇게 깨어있는 학교구나" 이 말이 너무 좋았고 저는 "총학치곤 잘했네"는 싫은데 "총학에서 이런 퀄리티를 어떻게 냈냐" "총학이라 기대를 안했는데 웬만한 웹드보다 재밌다" 이런 말 했을 때 그런 게 너무 좋았어요

다현: 다 사람을 갈아서 만들었습니다.

지원: "너무 재밌다" 하고... 그냥 몰입한 댓글들이 다 좋았어요. 몰입해가지고 "담요 들고 다닌다" 그런거랑 "부총님 적서 드릴게요/물 드릴게요" 너무 웃겼고...